

대한상의 브리프

강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2017년 9월 4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입법현안을 두고 여야간 협력과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번호는 경제·산업 전문기자가 '미리 본 9월 정기국회 입법 현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미리보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다.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책과 예산 등 이슈 하나하나를 놓고 대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10년 만의 공수교대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통상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업과 기업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대거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야권의 견제 역시 거셀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복지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공동공약·무쟁점법안 먼저 처리

여야는 각 당의 공동 대선공약과 의견이 엇갈리지 않는 무쟁점 법안 62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유통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 공동 공약을 반영한 법안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 주요일정]

9월	1일(금)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11일(월)	12일(화)	13일(수)	14일(목)			
	개회식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치	외교통일 안보	경제	교육 사회문화			
9월	15일(금)	27일(수)	28일(목)	10월	12일(목)	31일(화)	11월	1일(수)	12월	1일(금)	7일(목)	8일(금)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국정감사 실시			'18년 예산 시정연설		본회의		
									예산 처리	법안 처리	법안 처리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예상되는 주요법안]

공통공약 · 무쟁점법안	쟁점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법인세 인상•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규제프리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 의무고용 할당• 재벌 중대 경제범죄 무관용 원칙 등

유통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에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국회가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 · 법인세 인상안 ‘주목’

문재인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은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국제적인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오너가 아니라 주주, 근로자,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 일자리 감소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증세논의에 참여하면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이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담뱃세를 2천원 인하하고 배기량 2천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를 50%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이 소득세 · 법인세 증세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로 담뱃세 · 유류세 인하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논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관전포인트다. 여야는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에는 의견을 좁혔지만, 적용시기, 휴일근로할증률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에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톤급 이슈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휴일근무수당 중복 문제 해결, 특별 연장근로(8시간) 인정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시간의 기준은 1주일이다. 정규근로는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40시간이고,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1주일이 5일(월~금)이라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토·일요일(휴일)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현재 최장 근로시간은 정규 근로(40시간)와 연장근로(12시간)에 별도의 휴일근로 16시간(8시간+8시간)을 더한 68시간이다.

여야는 1주일이 7일이라고 법에 규정해 별도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별도 16시간의 휴일근로가 사라지면 최장 근로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고용을 늘려야 생산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원은 추가고용 등에 매년 12조3천억원의 노동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 중에서도 300

명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비용의 70%인 8조 6천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규제개혁법도 다시 수면위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U턴기업지원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들은 이전 정부에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됐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당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푸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을 감내하는 기업에 숙원과제인 규제철폐·개혁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적극적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수단”이라면서 “불합리하거나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8·2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재난의료비지원법 제정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9월 4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 ^(E)	IMF		OECD	
			2017 ^(P)	2018 ^(P)	2017 ^(P)	2018 ^(P)
한국	2.8	2.8	2.7	2.8	2.6	2.8
세계	3.4	3.2	3.5	3.6	3.5	3.6
미국	2.6	1.6	2.1	2.1	2.1	2.4
중국	6.9	6.7	6.7	6.4	6.6	6.4
일본	1.1	1.0	1.3	0.6	1.4	1.0
EU	2.0	1.8	1.9	1.7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원/달러	1,131	1,161	1,145	1,135	1,133	1,125	1,130	1,134
원/엔	934	1,068	1,013	1,004	1,029	1,003	1,019	1,009
원/위안	180.1	174.4	167.2	164.8	164.5	163.5	166.1	167.5
원/유로	1,255	1,283	1,219	1,213	1,213	1,245	1,269	1,306
유가(Dubai)	32.2	53.8	55.2	50.8	50.2	50.1	46.5	50.4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생산	1.9	3.0	4.2	4.1	3.5	2.6	1.5	-
소매판매	4.1	4.3	0.5	1.2	2.6	1.5	1.0	-
설비투자	6.9	-1.3	19.5	23.4	14.3	19.5	18.7	-
수출	-8.0	-5.9	20.2	13.1	23.8	13.2	13.6	19.5
수입	-16.9	-6.9	24.0	27.7	17.3	19.1	19.8	14.5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